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2호 HYUNBULNEWS.COM 2025년 8월 13일(음력 윤6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진관사 태극기로 기리는 광복 80주년 서울시가 불교 항일유산인 '서울 진관사 태극기(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새긴다. 서울문화재단(대표 송형종)은 8월 9~17일 노들섬에서 개최하는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독립,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의 일환으로,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건물 외벽을 '진관사 태극기'로 장식했다. 행사 동안 '역사 속의 태극기展(노들 야외스퀘어)'과 '태극기 역사기록 사진展(노들라운지)'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를 만날 수 있다. 〈관련 기사 12면〉 글=여수령 기자, 사진=정현선 작가

불교계, '하나된 한국' 위해 평화 행보 나선다

조계종 · 민추본, 8월 14일 평화 법회
대화 촉구문 · 평화통일 발원문 낭독도
8월 15일 10시, 전국 사찰 33타 타종
진우 스님, 정동영에 "평화무드" 강조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광복 80주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 분단국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남북이 하나되는 '완전한 광복'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화합과 평화 분위기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공식 남북불교교류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와 함께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는 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북 모두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에서는 연꽃으로 평화의 한반도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남북평화를 위한 대화재개 촉구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평화통일발원문 낭독, 뮤지컬 갈라팀 '어쏘트디'의 광복 기념 및 평화 기원 노래공연이 이어진다.

본부장 태효 스님은 "지난 2024년 3월 5일 조계사 마당에서 '불기 2568년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하며 남북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해마다 평화통일기원법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8·15를 즈음해 개최하며 갈등과 적대를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7000만 겨레에 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추본은 법회와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국 독립운동과 불교'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포럼 '일제 강점과 분단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를 진행한다. 특별기획전은 8월 7~17일 서울 봉은사 연희다원(전통찻집) 앞 야외에서 전시된다.

특별포럼은 8월 11일 오후 3시 서울 동국대 학명세미나실(문화관 2층)에서 진행되며 1부는 '불교 독립운동의 연구, 성격-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특강한다. 2부는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7일 '불기 2569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법회 계획을 확정했다. 기념법회는 8월 15일 오전 10시, 회원종단 소속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거행되며 33타의 타종으로 시작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국난극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과 국민 화합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사찰 상황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헌향, 추모묵념, 광복절 의미와 평화통일 염원 법문, 불교계 공동선언문 낭독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복 80년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화합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쉼없이 정진하겠다"는 불교계의 다짐이 담겼다.

종단 차원의 평화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6월 16일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을 대북 종책 특보로 임명하면서 남북 교류 복원에 대비한 조직 정비를 서둘렀다.

8월 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남북관계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정 장관의 임명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며 "국제 정세도 점차 평화 무드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든다"고 말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 원산 갈마지구와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불교계가 앞장서서 관광도 하고, 내년쯤 신계사에서 공동법회를 열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신계사 복원 불사를 지원한 인연을 소개하고 "청문회 때 원효 대사 말씀을 인용해 '남북관계는 불일불이(不一不二)', 곧 남북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며 "불일불이 사상이야말로 앞으로 평화통일 과정의 가장 큰 정신적 원천이라 생각한다.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불교계가 큰 역할을 해주면 고마울 것"이라고 요청했다.

성파 대종사 해제 법어
"폭우 이재민에 따뜻한 손 되길"

전국 선원 8일 하안거 해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8일(윤 6월 15일) 을사년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려 폭우 피해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을 마친 안거 대중에게 "안거(安居)가 원만했고 자자(自恣)가 원만했으며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법식(法食)이 넉넉하니 금년 하안거는 제천이 환희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할 만하도다"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와 신심 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고 격려했다.

이어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라고 수행을 점검하며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의 면면이 중생들에게 법(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이 되길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을사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2개 선원(총림선원 6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27곳)에서 총 1790명(총림선원 222명, 비구선원 1046명, 비구니선원 522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5면〉

김내영 기자

산불 피해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추진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8월 4일 프로젝트 공개
"산림 정책 전환 계기"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 사찰림 바닥에서 맹아와 참나무류가 새싹을 틔우고 있다. 사진 제공=불교환경연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각과 사찰림 약 98%를 잃은 의성 고운사가 사찰림의 자연복원을 결정했다. 광범위한 사찰림의 자연복원은 첫 사례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운사는 8월 4일 경내에서 불교환경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등과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자연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회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운사의 결정은 사찰림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최초 사례로 나무줄기까지 피해인 수관화를 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본격적 복원이다.

이번 조사의 중간보고서는 오는 9월 중,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연대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새로운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2026년 초부터는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과 자연복원 유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과거의 모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숲을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나무 숲의 옛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자연이 선택하는 새로운 숲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자연복원의 의미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면에 계속

AI 2025 현대불교신문 그림 공모전

2025. 08. 04 ~ 08. 29

공모주제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AI로 그려주세요

공모기간 2025년 8월 4일 ~ 8월 29일

참가자격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이메일(hbnewmedia@naver.com)

참가방법 1인 1작품 + 공모전 지원서(홈페이지 참조)

제출형식 파일형식 : jpeg, jpg, png
해 상 도 : 300dpi, 6000px 이상 / 가로형식(3:2)

수상발표 2025년 9월 15일 / 현대불교신문 사이트 게재

시상내역

대 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30만원
우수상	3명	20만원	장 려 상	10명	10만원

수상작의 저작권은 현대불교신문에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2026 캘린더 제작에 사용 예정

문의 02-2004-8252 현대불교신문 https://www.hyunbulnews.com/